코스 레이아웃과 클럽 하우스 위치

지형도가 작성되면 그 지형도를 기초로 해서 각 시설의 배치와 코스 레이아웃을 생각한다. 구상 단계에서 설계자는 부지 내 중간 정도의 등고선을 중심으로 색연필로 일정 높이마다 차이를 두고 등고선마다 다른 색깔로 표기해두면 전체 부지 내의 지형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설계자는 지형 파악을 한 후 클럽 하우스의 위치와 각 홀의 루틴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된다. 지형이 완만하고 고저 차이가 작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안이 나올 수 있으나 지형이 험준할 경우에는 다양한 안이 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가능한 한 자연 지형을 살리고, 토지 이용을 최대화하며 훌륭한 코스를 만든다는 것 등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주어진 지형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표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주를 거절하는 것이 보통이다.

클럽 하우스의 위치 선정 조건

여기서 코스의 배열에 관하여 설명하기 전에 골프 코스의 중심이 되는 클럽 하우스의 위치에 관하여 논하고 싶다. 클럽 하우스의 위치를 미리 결정해주는 일은 레이아웃 작업을 진행하는 데 절대적이다. 클럽 하우스의 위치는 홀의 배치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코스에 악영향을 준다. 영업상으로도 그 위치는 중요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클럽 하우스의 위치를 선정할 때 대부분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는데 이 조건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워 이의 적절한 조정도 중요하다.

먼저, 진입 도로의 조건이다. 진입 도로는 일반 도로와 연결이 편리하고 구역 내에서 진입 거리가 길지 않아야 한다. 진입 도로의 양 사이드와 홀 간에는 각 35 m 정도의 녹지대를 두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거리가 길게 되면 그만큼 코스 용지가 줄어들게 된다. 연속되는 커브 길과 급한 등판 길도 없어야 한다. 또한, 과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장소에는 만들지 않아야 하며, 홀 가까이 주행하거나 가로질러 주행시켜서는 안 된다.

둘째,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클럽 하우스 주위에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며, 클럽 하우스와 같은 수준으로 주차장 등이 설치되는 것이 좋다. 또한, 정원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연습장, 연습 그린 등을 가까이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홀과의 밸런스이다. 시작 및 종료 홀은 클럽 하우스에서 필요 이상 멀지 않고 고저 차이도 6 m 이상 두지 않아야 바람직하다. 그리고 급격한 상향 및 하향 홀은 클럽 하우스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망이 좋고 양지 바른 곳에 두어야 한다. 특히, 코스의 고저 차를 배려하여 차가 현저하게 많을 때는 중간 지점에 클럽 하우스를 놓는다. 예컨대 골프장 부지 중에는 고저 차가 200 m 정도 되는 곳이 있는데 클럽 하우스를 제일 높은 위치에 두면 플레이어는 Out, In 양 코스 모두 200 m를 오르내려야 한다. 중간 지점인 100 m의 위치에 클럽 하우스를 놓으면 Out, In 각 코스의 고저 차는 공히 100 m가 되어 플레이어의 고통이 앞의 경우보다는 경감된다.

레이아웃에 실패한 작품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0여년 전에 건설된 서울 근교의 ○○CC는 조망을 강조해 부지의 제일 높은 곳에 클럽 하우스를 두어 홀의 고저 차이가 크게 발생해버린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근래에 신설한 코스 중에 여주에 건설된 △△코스는 진입 도로를 짧게 하기 위해 부지의 제일 하단부에 클럽 하우스를 둠으로써 코스 내의 홀간 이동 고저 차이(그린과 다음 Teeing ground 사이의 높이 차)가 크게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 이러한 코스에서는 동절기나 우기시 도로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필자가 보기에는 이 모두가 레이아웃에 실패한 작품들이다. CJ

김명길
필드콘설탄트기술사사무소 회장